

시민 2000명과 함께한 광산구 30년

광산군서 1988년 광주 편입
30년새 인구 3.3배 발전이뤄
사진전·연주회 등 기념행사

광주 광산구가 신설 30주년을 맞아 30일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광산구는 전남 광산군이었다가 1988년 1월 1일 광주에 편입된 이후 각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운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분권 개헌 광산회의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주민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됐으며 광산구 30년 변천사를 담은 사진전도 마련됐다.

1988년 12만5521명이었던 인구는 1994년 20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말 41만6285명으로, 30년 사이 약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체 인구는 111만6332명에서 148만5049명으로 1.3배가량 늘었다.

광산구는 주민 평균 연령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광주 광산구가 신설 30주년을 맞아 30일 오후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광산구의 30년 변천사를 담은 사진전을 감상하고 있다.

주민등록 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광산구 주민 평균 연령은 35.8세(2016년 12월 31일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 주민등록 통계상 전국 평균은 41.4세, 광주시 평균은 39세다.

광산구는 점단지구, 수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 대기업 공장을 갖춘 하남산업단지, 금형업

중·기기업체 광주공장 협력업체 등이 입주한 평동산업단지 운영 등을 구 발전과 인구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첫 회의

오치동에 2020년 개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광주시청 16층 회의실에서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건립추진단은 지난해 11월 민·관전문 협의체가 구성된 후 건립 사업의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을 단장으로 대변인실, 종합건설본부장 15개 부서 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건립지원팀, 건축설계팀, 콘텐츠구성팀 등 3개 팀으로, 체험관이 건립되는 2020년까지 운영되며 민·관전문협

의체와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열린 회의에서는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사항, 향후 계획 및 체험시설의 구상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이 광주시의 안전문화를 대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은 북구 오치동에 연면적 6685㎡,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6개 일반 체험존, 체험존별 필수 체험실로 구성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청소년상담센터 28주년 강연회 개최

사단법인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이사장 박종)가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차은선)가 지난 5일 개원 28주년을 맞아 부모교육 강연회를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90년 2월 5일 전국에서 최초로 개원한 뒤 청소년상담, 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래상담자 양성, 멘토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 등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학교밖청

소년 지원을 위한 시초가 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해밀'도 운영하고 있다.

차은선 센터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3회, 청소년동반자서비스 만족도평가 전국 1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5회, 교육부장관 표창 1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표창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표창 등 20여회의 수상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 ‘어린이 교통안전도시’ 만든다

높은 횡단보도·노란 신호등 등
풍암초·효동초 시범 운영
102개교 스쿨존 정비도

‘걸어다니는 신호등’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도시 광주형 표준모델’을 만든다.

특히 광주시는 학교 주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도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3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모델을 발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서구 풍암초등학교와 북구 효동초등학교 등 2개교다.

이들 학교 일대에는 3월 초까지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돼 차량 속도를 줄이게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며 ‘노란 신호등’ ‘태양광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컬러 노면 포장’ 등이 시행된다.

광주시는 이 표준모델을 앞으로 광주지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더욱 쉽게 발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점검·정비도 한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초까지 10억원을 투입해 광주지역 102개교 인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노면 등을 새롭게 덧칠하고 속도제한표지 등을 세우는 등 총 711건을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시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초등

학교 주변 76곳에 횡단보도 옐로카펫을 설치, 아이들은 안전하게 횡단보도 신호등을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 김준영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들의 눈높이가 성인에 비해 낮고,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며 “시, 교육청, 경찰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3% 이상이 운전자에 의한 과실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운전 불이행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 보호위반(25%), 신호위반(15%) 등 순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주민 합창단’ 2월9일까지 모집

광주시 동구가 ‘동구 합창단’ 단원을 2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동구 주민 또는 동구에 사업장을 둔 시민 중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모집 부문은 남성은 테너·베이스, 여성은 소프라노·알토 등이다.

입단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디션을 위한 자유곡 악보 사본 등을 동구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남녀혼성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열정을 갖고 참여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10월 창단한 동구합창단은 각종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62-608-2403. /김용희기자 kimyh@

북구,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신청자 모집

21개 사업 2279명 선정

광주시 북구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0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제공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북구는 올해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용자 2279명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기간은 아동·청소년 분야 2월1~2일, 노인·장애인 분야 2월5~6일, 가족·신체 분야 2월8~9일이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부사업 150% 이하)인 가구이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신청서, 사업별 이용자 선정에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3월부터 각 사업별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지급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사업은 아동·청소년 분야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행성서비스, 노인·장애인 분야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해피 실버 문화여가서비스 ▲장애인건강진서비스 등이다.

또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가족기능 강화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기타 가족·신체 대상사업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410-628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	--	--	--

대표전화 1588-2219